

## 세계 경제 동향

### ○ 국제 유가, 종전협상 기대에 소폭 하락 | '26-4-11 연합뉴스; '26-4-12 동아일보

- '26년 4월 10일 국제유가는 미-이란 종전협상 기대감에 소폭 하락함.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0.75% 하락한 배럴당 95.20달러, WTI는 1.33% 내린 96.57달러에 마감함. 그러나 4월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협상은 14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에도 핵 프로그램 중단 약속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됨.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결렬을 선언하고 본국으로 복귀하였음.
- ❖ 미-이란 협상 결렬로 중동 분쟁 장기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며, 비료·사료 원료 등 농업 투입재 수급 차질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짐.

### ○ IMF 총재, "중동전쟁 충격 완화가 최우선 과제" | '26-4-9 IMF

- '26년 4월 9일 IMF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2026 춘계회의(2026 Spring Meetings)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 세계 원유 흐름의 약 13%, LNG 흐름의 약 20%를 차단하는 대규모·비대칭적 충격이라고 평가함.
- IMF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세계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현 단계에서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되 기대인플레이션 불안 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재정당국은 취약계층 대상 한시적·선별적 지원에 집중하고 수출 통제·가격 통제 등은 자제할 것을 권고함.
- ❖ 비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식량 불안 인구가 추가로 4,5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경고한 만큼, 한국 농업 부문도 농자재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

## 국내 경제 동향

###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로 동결 | '26-4-9; '26-4-10 한국은행

- '26년 4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압력과 성장 하방압력이 동시에 확대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함.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0%)를 하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망치(2.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3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외국인 주식 대규모 순매도로 1,530 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미-이란 임시휴전 이후 하락하여 4월 9일 1,482.5원을 기록함. 3월 중 외국인 국내 주식자금은 29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되었으며, 변동성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됨.
- ❖ 고회율·고유가 기조가 이어질 경우 농업 투입재 수입 단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 정부,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26-4-11 조선일보

- 정부는 소득 하위 70%(약 3,256만 명)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취약계층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며,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임.
- 지원금은 신용·체크·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함.
-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기적인 민생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에너지 비용 상승이 농자재·사료 가격으로 파급되는 구조적 압력에 대해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차별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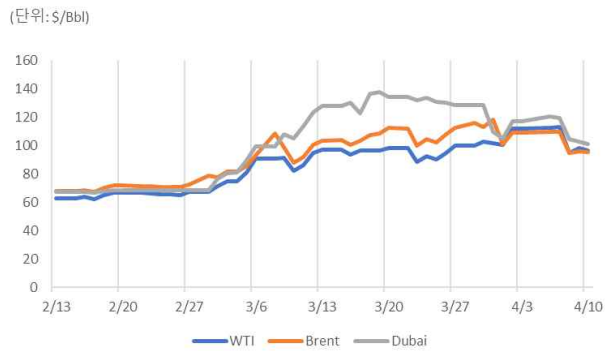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일본, 중동 정세에 따른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 태스크 포스 설치 | '26-4-2 일본 내각관방
  - '26년 4월 2일 농림수산성은 제1회 중동 정세 대응 중요 물자 공급 TF 회의에서 농림수산업·식품산업 분야의 연료 사용 현황과 대응책 자료를 제출함.
    -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연료 사용량을 총 약 690만 5천 k로 파악, 대응책으로 시설원에 농가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료 가격 상승 시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
  -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
- 식량농업기구, 중동 분쟁으로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 | '26-4-3 식량농업기구
  - '26년 4월 3일 식량농업기구(FAO)는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128.5포인트)가 전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발표함.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곡물 +1.5%) 미국 가뭄·호주 비료비 상승으로 밀 가격 4.3% 급등, 옥수수는 에탄올 수요 확대 기대로 소폭 상승
    - (유지류 +5.1%)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기대로 팜유·대두유 등 일제히 가격 상승
    - (설탕 +7.2%) 브라질 사탕수수 활용 에탄올 생산의 확대 전망으로 큰 폭 상승
    - (육류 +1.0%·유제품 +1.2%) 육류는 EU 돼지고기 수요 증가와 브라질 소고기 공급 감소로 상승, 유제품은 오세아니아 계절적 공급 감소로 상승
  - ❖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세계 식량 생산에 영향을 줌에 따라, 국내 수급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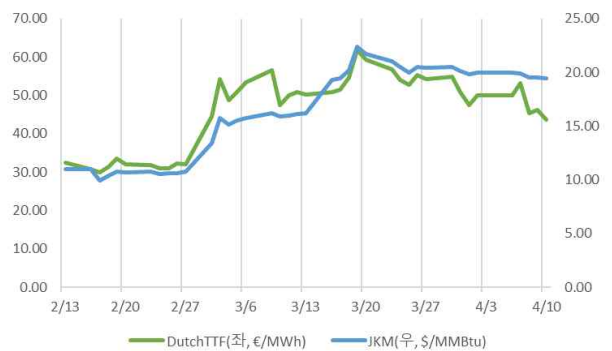
##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농식품부, 필수 농자재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 대응 | '26-4-6; '26-4-7; '26-4-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봄 영농철을 앞두고 중동전쟁에 따른 필수 농자재(비료·농업용 필름 등)의 공급·재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계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임. 지난 3월 30일부터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음.
    - (비료)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7월까지 총 8.6만 톤 안정적 공급 가능('25.4~7월 판매량 8.8만 톤). 농협을 통한 조합별 공급량 조정 및 농가별 구입 한도 배정으로 가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 확대가 계획됨.
    - (농업용 필름) 현장조사 결과 봄 영농철 소요 재고는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협을 통한 조합 간 물량 지원 및 가격·재고 점검이 추진될 예정임.
    - (난방용 유류) 국제유가 상승으로 시설원에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난방용 유류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추경예산안에 반영됨)이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임.
  - \* '26년 4월 둘째 주 실내등유 면세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함.
  - (농약) 올해 사용할 원제 소요량의 90% 이상을 중동전쟁 전에 이미 확보하여 완제품 생산·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농약 원제의 중동 수입 비중이 낮아 가격 변동 요인이 없으며, 현장 판매가격도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추경 연계 지원의 신속한 집행과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농자재 비축 확대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6년 2월~3월 국제 유가 추이』



『'26년 2월~4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



『'26년 2월~4월 원/달러 환율 추이』

